

[P2-13]

고지혈증 환자에서 약차(藥茶)의 임상적 효능연구

임현정^{*}, 조금호¹, 조여원

경희대학교 동서의학대학원 임상영양전공, 경희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¹

심혈관계 질환의 3대 위험인자 중 하나인 고지혈증은 현재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으며, 많은 치료법이 제시되고 있다. 또한 한의학에서도 혈중 지방을 정상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한약재로부터 생리활성 물질을 탐색하고, 동물모델에서 한약재 치료효과를 밝히는 등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. 그러나 저질저하의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, 식품으로 이용될 수 있는 한약재에 대한 임상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. 본 연구에서는 식품으로 등재된 한약재 중 지질감하 효과가 검증된 재료로 한방약차의 복합처방(상엽, 구기자, 국화, 나복자, 참깨, 대추)을 구성한 후 고지혈증 환자에게 이를 섭취하게 하여 혈중지질농도의 변화, 항산화 효과, 혈중 homocysteine 농도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였다.

대상자는 K 대학병원 건강검진센터의 검사결과 혈청 총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농도가 각각 200mg/dl 이상인 사람 중 저질저하제를 복용하고 있지 않은 43명(남23명, 여20명)으로 하였다. 대상자를 대조군(14명)과 약차군(29명)으로 나누어 12주간 매일 450ml(2 컵)씩 섭취하게 하였다. 실험 전후의 신체 체중과 혈압을 측정하고, 공복시 혈액을 채취하여 혈청을 분리한 후 혈청 lipid profile(효소법)과 homocysteine(HPLC 이용) 농도를 분석하고 적혈구에서 superoxide dismutase(SOD), glutathione peroxidase(GSH-Px)을 측정하였다. 모든 대상자에게 고지혈증 치료지침에 따른 의학영양치료(Medical Nutrition Therapy, MNT)를 실시하였으며, 전문임상영양사가 일대일 면접으로 총 7회 실시하였다.

혈중지질농도는 약차군에서 총 콜레스테롤이 234.4±32.6mg/dl에서 208.1±39.0mg/dl로 감소하였고, 중성지방 농도는 232.1±78.3mg/dl에서 149.1±56.5mg/dl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.($p < 0.05$) SOD와 GSH-Px에서는 유의적인 결과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. Homocysteine 농도도 유의성 있는 결과는 관찰되지 않았으나 약차군에서 8.5±2.8mmol/ml에서 7.4±2.5mmol/ml로 감소하여 정상범위에 속하였다. 12주 간의 MNT 후 모든 군에서 콜레스테롤식품 섭취는 주 1.5회에서 주 0.7회로 감소하였고, 짬음식과 단음식 섭취도 각각 1.7회에서 0.9회, 2.3회에서 1.3회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. 간식(과자류, 사탕류 등) 섭취횟수도 2회에서 1회로 감소하였다.($p < 0.05$)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, 고지혈증의 약물치료에 앞서 MNT와 한방약차의 병행은 보조적인 치료요법으로 효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, 여러 심혈관계질환의 유병율을 감소시키고 궁극적으로 만성질환 예방에 간접적인 보호효과를 나타내어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.